

문화예술 관점으로 '동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다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될 만큼 생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 등 다양한 요인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기후 위기와 직결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 문제'다. 개개인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지구 환경 오염을 넘어 기후 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 쓰레기 문제를 문화예술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쓰레기 문제를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해결해 보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독립서점 '소년의 서'가 '우리동네 쓰레기 문제, 문화예술로 해결하기'를 주제로 작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디자인 시각화, 축제와 쓰레기, 자원순환 사례, 워크숍 등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10월 19일까지 장소는 소년의 서 등이며, 모두 11회 차로 매회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를 넘어 인문학, 과학, 실용적 시각을 융합해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길 위의 인문학 2024'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문체부와 문예위, 도서관협회, 소년의 서가 주최, 주관한다.

프로그램의 막은 지난 10월 2시 김신준 작가가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열었다. 탈성장과 예술을 함께 고민해보

독립서점 '소년의 서' 10월19일까지 주민·예술인 참여 11차례 진행
디자인 시각화·축제와 쓰레기·자원순환 사례·워크숍 등 방안 탐색



오는 10월 19일까지 소년의 서 등에서 '우리동네 쓰레기 문제, 문화예술로 해결하기'가 진행된다. 재활용품에서 나온 다양한 뚜껑들. (소년의 서 제공)

는 시간이다.

이어 14일(오후 2시)에는 김영훈 무경G&C(주) 현장감독관이 '광주 동구 쓰레기수거 및 처리과정 실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24일(오후 2시)에는 이경희 친환경순환센터장이 '친환경자원순환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모티브로 시민들을 만나며, 31일(오전 11시)에는 최지선 시각프레스 대표가 '친환경자원순환센터 탐

방 투어'를 진행한다.

자원 순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있다. 9월 7일(오전 11시)은 장현규 마을발전소 사무국장이 '용봉마을 자원 순환 사례 이야기를 중심으로'를 들려준다.

쓰레기와 개개인의 문제를 사유해보는 '쓰레기와 나의 연결고리'(21일, 오전 11시)는 김지현 한 걸음가게 대표가 자연순환과 일상의 관점에서 주제

를 풀어갈 예정이다.

디자인 워크숍도 마련돼 있다. 최지선 시각프레스 대표는 '자원순환을 정보디자인으로 시각화하기'(28일, 오후 2시)를 진행한다.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홍보국장은 축제와 쓰레기 문제를 짚어본다. 10월 2일(오후 7시)과 5일(오후 4시)은 각각 '광주 축제에 배출되는 쓰레기 실태를 중심으로', '광주충장축제 탐방하고 쓰레기 현황'이 펼쳐진다.

동네 쓰레기 문제를 디자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탐구하는 시간도 있다. 12일(오후 2시)에는 최지선 시각프레스 대표가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디자인으로 풀어보는 디자인 워크숍'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지막 시간 19일(오전 11시)에는 '한 발짝, 나아가기'를 주제로 후속모임이 예정돼 있다.

한편 임인자 소년의 서 대표는 "폭우, 폭염, 태풍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기후변화와 위기 속 지금 '나는 이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을까'를 생각했다. 기후 위기 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와 실천을 위해 쓰레기에 주목했다"며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우리 동네의 쓰레기 해결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선목회 정기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실 내부 모습.

선목회 정기전 '여린소녀, 애뜻하게'

14일까지 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고 양계남 화백 1주기 추모도

지난해 별세한 월아(月娥) 양계남 전 조선대 교수의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한국화를 배웠으며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전남권 최초 한국화 전공 교수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예술창작에 전념했다. 무엇보다 정년퇴임을 기념해 자신의 호를 딴 월아미술상을 제정, 한국화를 전공한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귀감으로 평가받는다.

고인의 작품 특징은 동양 정신에의 충실이다. 한국의 자수를 모티브로 정교한 세필묘사로 구현한 것이다. 트레이드마크인 난꽃잎 준법은 무형유산의 초화(草花)형태의 관식(冠飾)을 양식화하고, 한켠에 부채모양의 공간을 설정해 사슴의 형상을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양계남 교수 1주기와 맞물려 고인이 생전 교문으로 활동했던 선목회가 제37회 정기전 '여린소녀, 애뜻하게'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14일까지 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전국 화단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펼치며 30년 넘는 역사를 지속해온 선목회의 발자취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다.

지난 1978년 조선대 미술대 한국화 전공의 고(故)이창주, 고(故) 양계남, 김대원, 박문수 화백을 중심으로 창립된 선목회는 매년 한국화를 모티브로 연구 및 정기전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양계남 교수의 1주기를 맞아 평소 고인이 '시와 노래 같은 그림들로 흥취인간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다'던 뜻을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모두 56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창주, 양계남, 김대원, 박문수 고문과 김종경, 박홍수 자문위원이 작품을 출품했다. 아울러 강명수, 고미아, 김다인, 김하늘, 김하슬, 노의진, 박의천, 박일광, 박진현, 송대성, 안재현, 양홍길, 윤성민, 윤준성, 이지예, 정명숙, 조선아, 조영숙, 주하



고 양계남 교수

시보다 의미가 깊다.

한편 하슬 작가는 "양계남 교수님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인자하셨던 미소를 늘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며, 저희 항상 지켜봐주세요.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후배로 남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또 선목회 한 후배는 "익히 양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 마음 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멋진 분의 후배인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습시다"라고 이번 전시 의미를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은, 추순정, 홍지희 작가 등 모두 5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대 청년작가부터 70대 원로작가까지 폭넓은 연령대 작가들로 세대를 초월해 한국화를 사랑하고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을 지향한다. 이 같은 뜻 외에도 제자들에게 애정이 깊었던 양계남 교수를 향한 존경과 애뜻함을 담고 있어 여느 전시보다 의미가 깊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여공의 노래' 관객과 만남

14일 광주극장서 GV

"자 우리 여공들이여, 우리 또 하루를 살아가네."

일제강점기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먼 타향에서 일했던 조선의 소녀들의 삶은 비참했다. 방직공장에서 노동하며 배고픔에 시달린 이들은 버려진 돼지 내장을 구워 먹었고, 직접 야학을 열어 한글을 익히기도 했다. 소녀들이 고통 속에서 함께 불렀던 '조선인 여공의 노래'는 여공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준다.

광주극장(이하 극장)이 다큐멘터리 '조선인 여공의 노래' GV(관객과의 만남)를 오는 14일 오후 7시 20분 극장에서 연다. 이원익 감독의 작품으로 지난 7일 개봉해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광복절을 앞두고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GV에는 이원익 감독을 비롯해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속을 영화화한 '나고야의 바보들'을 연출한 임용철 감독, 정진미 PD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화는 일본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연명했던 조선인 여공들의 강인한 삶을 조명화한다. 그들은 공장에서 먼이나 생사, 인조 견사를 가공하며 공장 관리자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밤중에 한밤중 깊은 잠 들 때 잠을 깨우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눈뜨고 머리 빗으며 세수하고/ 식당에 가면 먹을 시간 없어 된장에 밥 싸서 나눠 먹고"('조선인 여공의 노래' OST 중 예시)

여공들이 서로 의지하며 불렀던 OST 등에는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밖에도 영화 속에는 1919년부터 문을 연 1941년까지 약 3만 명이 넘는 여공이 일했던 키시와다 방직 공장의 모습도 형상화했다.

극장 김현수 전무이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사와 비극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낭독자 등을 섭외해 더 큰 울림을 남기는 작품이다"고 했다.

디트릭스예매. /최류빈 기자 rubi@

삶과 저승 이야기 '만찬진, 오귀'

국립남도국악원-인천시립무용단, 17일 진악당

삶과 저승의 이야기를 다룬 '명부 신화'는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이야기,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해 왔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의 저승 신화를 무용극 형태로 풀어낸 작품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인천시립무용단(예술감독 윤성주) 교류공연으로 선보이는 '만찬진, 오귀'가 바로 그것. 공연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열리며 안무·대본·연출은 윤성주가 맡았다.

이번 작품은 생사의 순간 인간을 지켜보는 죽음의 신 '오귀'와 '진오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전승 제의식이라는 형식 속에서 격렬한 춤, 휘몰아치는 타악 비트 등이 울려 퍼진다.

관객들은 생사 순환의 철학과 신에게 치성을 바치는 원형적 의미를 투영한 '큰 곳' 장면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냉정한 법관의 이미지로 묘사되곤 하는 망자의 저승시왕이 인간애를 지닌 해석적 존재로 재해석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극 중 왕무당 역은 유나의 배우가 맡아 드라마틱한 안무를 선보이며 박수무당 역은 박성식, 망자 어머니 역은 임승인 배우 등이 맡게 된다. 이 밖에도 거대한 진혼곡을 주도하는 산자 아들 역은 김철진이 열연할 예정이다.

윤성주 연출가는 "개성 넘치는 캐스팅, 강렬한 이미지와 형식으로 관객들을 압도하는 공연에 관객들을 초대한다"며 "극 중 곳곳에 빙 둘러앉은 신과 인간



인천시립무용단 무용극 '만찬진, 오귀'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역할의 배우들이 펼치는 '큰 곳'은 마지막 삶의 의미, 길복을 축원하는 의미 등을 담고 있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공연 창작 워크숍... 17일~10월 25일

많은 이들에게 현대무용은 난해한 장르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동작들이 어떻게 유연하면서도 섬세하게 구현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무가의 주제의식이 어떻게 무용수의 몸동작에 녹아드는지도 감상의 주요 포인트이기도 하다.

현대무용을 모티브로 공연, 창작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공연 창작 워크숍을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매주 토요일) 펼친다.

'ACC 춤추는 극장'을 주제로 예술극장 아틀리에1에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1기와 2기 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CC 춤추는 극장' 1기는 현대무용 공연을 구성하는 요소를 주제로 이론에 간단한 실습을 더한 '현대무용 기초강좌'에 초점을 맞췄다. 스토리를 비롯해 음악, 안무, 무대구성 등 현대무용

공연 창작 과정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해보게 하자는 취지다.

워크숍은 7차시로 구성됐으며 마지막 시간은 1기 과정을 총합하는 중간 발표회로 기획됐다.

이어 11월 16일에 시작하는 'ACC 춤추는 극장' 2기는 '현대무용 안무 창작 실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총 7차시로 안무가와 함께 쉬운 현대무용 안무를 직접 만들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의 후 참가자들 창작 작품을 내년 1월 17일 결과발표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16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16일까지 ACC 누리집) 정원은 20명, 참가비는 2만1000원.

이강현 전당장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현대무용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